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북한의 통미봉남은 구시대 발상이다

된 것이지만 우리 정부는 이러한 회동이 성사될 수 있도록 뒷받쳤다. 남북간에, 한미간에 신뢰관계가 없었다면 이러한 회동이 성사되지 못했을 것임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을 떠나기 전 우리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재개기로 한 북미 협상에 가는 기대는 실로 크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직 직접 북미 실무 협상의 고비를 잘 넘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광복절 경축사의 내용대로 한반도가 북핵 문제나 분단 구조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미 관계의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정전 체제는 남북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중립적 이해관계가 해소되어야 한다. 특히 현 시점에서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남북 관계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재 북한은 과거보다 한미 연합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북미 실무 협상이 재개되면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폐지를 강하게 주장할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은 연례적, 방어적 훈련이고 이번에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최소한으로 운영했다. 북한은 우리의 군사 훈련에 대

응하는 자원이라는 명분 하에 수차례에 걸쳐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시험 발사하고 있고 우리와 미국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내부를 결속하고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이 이러한 언행을 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럴수록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만 가고 있으니 답답하다. 특히 하노이 북미 정상 회담 결렬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면서 남북관계의 문을 닫아 놓아서 안된다.

현재 북한은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하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북미 관계에서 빠지라고 압포를 놓고 있다. 남북 당국간 대화는 그렇다하더라도 민간 교류와 협력까지 막지 말아야 한다. 우리 당국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들이 순수하게 전개하려는 교류까지 정치적 이유로 차단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협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도 실질적인 소장화되어 열리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강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자세를 견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남북각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한 동질성 회복만이 공동 번영과 통일의 밑거

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음을 상기한다.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나아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는 갈수록 복잡해 질 것이다. 이러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과 함께 남북 관계의 발전이 중요하다. 우리가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특사 파견,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 여부에 많은 고민을 한 것도 한반도 평화 구축의 중요성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의 노력을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 국가안보 협력의 핵심은 신뢰이다. 신뢰 없는 한일간 지소미아는 이미 그 기초를 상실했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당연한 귀결이다.

북한의 통미봉남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경제 발전이라는 새로운 노선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북한은 더 이상 실기하지 말고 남북 관계를 통해 북미 관계를 착실히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의 협력에 대한 준비를 차분히 해 나가고 있다. 이후 남북 지방자치단체가 자매결연과 교류가 이뤄진다면 공동 번영의 토대를 함께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기고

우호 교류와 협력 상생, 중한 우호의 새 장을 쓰다



쑤시민위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 총영사

및 투자 협력 동반자가 됐다.

2016년 중국 정부로부터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 부임 후 광주시, 전남도와 전북도 각계의 중한 우호 교류와 협력에 대한 깊은 바람과 뜨거운 열정을 몸소 느꼈고, 양측 교류와 협력이 거둔 풍부한 성과들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반면, 지난 2017년 중한 관계가 좌절을 겪었던 어려운 시기도 거쳤다. 중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비바람 후에 무지개가 보인다”와 한국의 속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말처럼, 건실한 민의의 기반과 광범위한 공동 이익이 존재하는 중한 관계는 2018년 빠르게 정상 궤도로 개선됐다. 이는 중한 양국의 선린 우호 관계는 이미 양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뿌리내렸음을, 중한 관계의 양호한 발전과 유지는 양국 정부와 국민들의 보편적 공통 인식이자 견고한 신념임을 증명했다.

중한 수교 27주년의 새로운 역사의 기점에서 저는 중한 관계 발전에 대해, 또한 영사 업무 지역과 중국의 중한 우호 협력 및 교류의 광활한 전망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있다.

저의 이 같은 자신감은 영사 구역에 활발히 진행해온 대중국 우호 교류 협력의 분위기에 기반하고 있다. 현재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에서는 중국 각 성, 시와

100여 개의 우호 자매 도시를 맺고 있다. 양측은 고위급 상호 방문이 이어지고 있고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전북도지사가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했으며 중국 장우성, 저장성, 광저우시 등 대표단도 한국을 방문했다. 2017년 광주시가 설립한 차이나센터는 양국 교류 협력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2016년에는 부안 중국 문화원이 설립됐고 광주시는 5년 연속 중국 문화 주간과 정월성동요제를 개최하여 이 행사들은 광주시를 홍보해주는 명함이 됐다.

또한 저의 자신감은 영사 구역내 대중국 우호 감정의 깊은 민심 기초와 강한 발전 원동력에 기반하고 있다. 영사 구역에는 화교 2만여 명이 거주하고, 중국인 유학생 6000여 명이 공부하며, 매년 수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저는 영광스럽게도 전남도·전북도 명예도민, 광주시 명예시민을 수여하게 됐다. 또 광주대 명예박사와 광주전반기자 협회로부터 ‘프레스 프렌들리’ 감사패를 받았는데, 이러한 영예는 저 개인과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 업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일 뿐만 아니라 중한 우호 사업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관계자분들에 대한 포상이다. 영사 구역 내에서 중한 관계를 높이 중요시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며 중국 국민들에 대한 우정을 구현해낸 것이

라고 생각한다.

수교 27년, 중한 관계가 더 높은 기점으로 올라선 만큼 중한 양국은 더 폭넓은 분야를 가지고 더 광대한 목표를 바라보아야 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님은 ‘우호 교류, 협력 상생’을 시종일관 중한 관계의 주요 기조로 제시했다.

“이웃은 서로 잘 되길 바라고, 친척도 서로 잘 지내길 바란다”라는 말이 있다. 중한 양국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타고난 동반자이다.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지 70주년을 맞는 해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역시 ‘혁신적 포용 국가’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며 새로운 10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발전의 합류점이 중한 양국의 협력 강화에 역사적인 기회를 제공해 줬다.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은 중한 수교의 초심을 이어받아 양국 국민들의 복지를 염원해 지방 간의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한국 친구들과 함께 영사 구역과 중국의 교류 협력을 더 높은 수준으로, 더 폭넓은 분야로, 더욱 심도 있는 발전으로 추진하여 중한 우호의 새로운 장을 함께 써 내려 가겠다.

종교칼럼



황성호
영암 신복성당 주임신부

‘탐욕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일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물음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

인간의 본성은 본래부터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 율학에서 주장하는 성선설이다. 필자도 우리의 마음은 선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런데 가끔 내 마음의 선함을 행동하기보다 주저할 때가 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이익을 생각할 때, 나의 눈이 가려져 볼 수 없게 되면서 멍청할 때가 있다.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데, 끊임없이 봉사하고 싶은데, 대가 없이 희생할 수 있는데, 이 선한 마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것 같다. 예수는 인간의 선한 마음을 방해하는 그 장애물을 잘 알고 계셨다.

루카 복음에서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는 우리의 눈이 왜 가려지는지 알려준다. 풍족함의 대명사인 부자는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생활하고, 종기투성이인 거지 라자로의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주린 배를 채울 뿐이다. 그런데 부자는 종기투성이의 라자로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자

신의 풍족함에 젖어 있을 뿐이다. 무엇이 부자의 눈을 가려 식탁 아래에서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는 거지 라자로를 볼 수 없었던 것일까?

또 다른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명확하다. 재산을 모으려고 애쓰는 부자의 비유이다. 예수는 탐욕이 발달 행동하기보다 주저할 때가 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이익을 생각할 때, 나의 눈이 가려져 볼 수 없게 되면서 멍청할 때가 있다.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데, 끊임없이 봉사하고 싶은데, 대가 없이 희생할 수 있는데, 이 선한 마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것 같다. 예수는 인간의 선한 마음을 방해하는 그 장애물을 잘 알고 계셨다.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 쉽다. 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선이며, 많은 것이 소유가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은 더욱더 우리를 불안정과 불만족으로 자극한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존재가 매우 중요

하다고 믿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탐욕의 함정’이다.

최근 지인과 대화 중에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고 당황했던 적이 있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의 구조적인 악의 폐해는 크지만 나와 관련이 없다면 관심이 없다. 그러나 내 자신이 어떤 이익을 얻는데 있어서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탐욕의 대상은 물질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권력일 수 있으며, 기득권과 같은 편안함을 보장해주는 풍족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탐욕의 함정’에 빠지는 어리석음은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려 버린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탐욕의 함정’이라는 악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소유가 아닌 존재에 가치를 두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놀음과 같은 위험성은 피하고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한다. 결국 인간 복지에 가치를 두는 것, 공동선이 해당이다.

社說

택시 사납금 인상 복지·서비스 개선 계기로

광주 지역 법인택시 회사들의 사납금 인상이 기사들의 근로 여건 악화와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져 우려를 낳고 있다.

광주시와 택시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일자로 광주 지역 법인 택시회사에 근무하는 운전기사 회사에 매일 내야 하는 사납금(社納金)이 평균 3만 8000원(32%) 올랐다. 지난달까지 하루 11만 9000원씩 냈는데 이번 달부터는 평균 15만 7000원씩 내고 있다. 당일 택시 수입이 사납금보다 적을 경우엔 차액이 월급에서 공제되는 반면 수입이 사납금보다 많으면 운전기사의 몫이 된다. 하지만 사납금을 웃도는 실적을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런 상황에서 사납금이 대폭 인상되자 이를 채우기 위해 운전기사들이 과속, 신호 위반, 승차 거부 등 불법 운행을 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결국 택시기사들의 난폭 운전 등 무리한 운행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는 악순환을 낳고

있는 것이다. 사측은 최저 임금 상승과 경영 악화로 불가피하게 요금을 올렸다고 설명하지만, 정작 대중교통의 한 축인 공공성이 실종되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불친절과 승차 거부, 난폭 운전 등 택시 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는 광주만의 현안은 아니다. 국토부가 최근 ‘혁신 성장 및 상생 발전을 위한 택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서울시가 오는 2020년 택시 월급제를 시범 운용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광주시는 정부가 이를 전국에 확산할 실행 계획을 제시할 때까지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안을 고민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도·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 법인택시 업계도 ‘열악한 근로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는 기사들의 하소연에 귀를 열고 노사 상생, 시민 서비스 개선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실현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관광 여수’ 흐리는 무등록 숙박업소 양성화를

국내 최대 인기 여행지 가운데 하나인 여수가 피서철 특수를 노린 무등록 숙박업소들의 불법 영업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있다. 여수시가 숙박 공유 사이트에 등록된 지역 숙박시설을 분석해보니 250곳이 숙박시설로 등록하지 않고

리기 어려워 보상도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이들 업소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히고 있다. 당연한 조치로 환영할 일이다. 다만 무등록 숙박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이 힘든 현실과 관광객 수에 비해 부족한 여수시 숙박시설을 감안하면 무조건 퇴출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여수시가 등록된 숙박시설은 민박까지 포함해도 1000여 개다. 지난해 여수시 방문한 관광객 1365만 명 가운데 피서철인 7~8월에만 323만 명이 찾았다.

스마트폰 시대에 외국에선 주말이나 성수기 때 가정집을 숙소로 빌려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숙박 공유 사이트나 앱을 예약하는 숙박시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정책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다. 일정한 시설을 갖춘 업소는 양성화를 유도해 안전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

無等鼓

골의 아름다운 차별이 없다. 남녀도 국적도 인종도 공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 올해 가장 빼어난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는 푸스카스상 후보 열 명이 발표됐다. 여섯 차례 후보에 올랐지만 이번이 고배를 마셨던 메시, 태권도수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을 노리는 즐라탄 등이 팬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후보엔 여자 선수 세 명이 포함되어 있지만 제1회 수상자 ‘날강두’(호날두)의 이름은 없다.

푸스카스는 1950년대에 오로지 원발 하나로 조곡형거리와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를 세계 최고의 팀으로 만들었으며, 통산 528경기에서 512골을 기록한 뛰어난 골잡이다. 그는 특히 예술적이고 절묘한 골을 많이 만들어 ‘푸스카스의 골은 2득점을 매겨야 한다’는 찬사를 받았다. FIFA에서도 푸스카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한 해 동안 가장 멋진 골을 성공시킨 선수에게 ‘푸스카스상’을 수여하고 있다.

푸스카스는 한국과의 인연도 있다. 축구에서 최초의 한일전이 벌어진 1954년 스위스 월드컵 아시아 예선, 홈과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하는데 ‘다시는 이 땅에 일

패했다. 골키퍼 황덕영은 경기 후 ‘푸스카스가 슈팅하면 공이 대포알 같아 거의 안보일 정도였고 골대에 맞으면 골대가 부르르 떨더라’라며 놀라워했다.

푸스카스상은 다음달 1일까지 세계 축구 팬들의 투표로 최종 후보 세 명을 선정하고, 축구 전설들이 참여해 최종 수상자를 뽑는다. 아쉽게도 상이 제정된 이래 10년 동안 한국 선수들이 후보에 오른 적은 없다. 토트넘의 손흥민이나 K리그 선수들도 멋진 골로 푸스카스상을 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유재관 편집1부장 jkyou@

푸스카스상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체 육 부 220-0633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세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세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